

01. 대림절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경건하게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02. 예 배

주일찬양예배는 2024년 성탄 축하의 밤 "Love"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및 기관에서 준비한 찬양과 다양한 순서로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03. 성탄절

① 성탄절 예배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새벽예배: 12.25(수) 오전 6시, 베들레헴성전 본당
- 성탄절 예배: 12.25(수) 1부(오전 7시), 2부(오전 9:10), 3부(오전 11:20), 예루살렘성전 본당 (대상: 전교인 및 교회학교)

※ 성탄절 수요기도회는 없습니다.

② 성탄절 당일(12.25) 명일여고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개방됩니다.

③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역 기관 및 어렵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동센터, 선교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재소자 자녀 자립 후원, 경찰선교회, 미자립 교회 등)

04. 2024-25 Love In(러빙) 축제

12.29(주일)부터 1.12(주일)까지 3주간 새가족과 장기결석자, 온라인 성도들을 초청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들을 전도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임 명

2025년 여선교회 회장단(추가)이 임명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sch.or.kr)

06. 알 림

공동의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일시 / 장소: 12.22(오늘) 주일찬양예배 후 / 예루살렘성전 본당
- 안건: ① 원로장로 추대
② 안수집사·권사 피택
③ 2024-25년 예·결산 보고
- 대상: 18세 이상 세례·입교인

07. 기도실 안내

베들레헴성전을 기도실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힘써 주시고, 분주하고 어지러운 이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로리아센터 (GCC)	해설이 있는 현악 앙상블 '퇴근길 콘서트'
	· 일시 / 장소: 12.27(금) 오후 7시 / 1층 카페 램프 · 출연: 이현웅(바이올린), 이은원(비올라), 박선아(첼로), 신효건(피아노) · 입장료: 1만 원(식사 시 2만 원)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야훼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며, 신약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기업의 이름을 지을 때, 꿈과 소원을 가지고 짓지만 그 이름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며,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의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목자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평생 우리와 함께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양이 능력이 있더라도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지켜서 그 능력으로 안전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주고,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과학이나 지식은 목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방향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밤에도 양의 우리 안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교회라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의 치료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밖으로 나가지 말고, 스스로 약한 줄 알고 목자의 보호를 받고 우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인간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까지 동행하실 이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외에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다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실 때 이 나라에도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양의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확실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배진태 안주훈 최운배	교육목사 권오병 이승갑 천혜림
목사 김남수 김동민 김동욱 김동진 김득열 김민음 김봉기 김석호 김예셀 김요한 김윤호 김은자 김은혜 김준환 김춘희 김희영 문명석 문승진 박근우 박보하 박영호 박우진 박현규 방유경 백재용 서찬성 손원재 손지목 송한솔 신동신 신재희 신충현 우종협 유태규 윤석진 이경민 이경환 이대천 이택기 이서구 이울관 이은세 이재민 이정수 이지명 임기도 임용섭 임은목 임지환 장중민 정 일 정홍배 조성민 조재영 최대열 최예녹 한바울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전도사 권예찬 권혁현 김석현 김승택 김용문 김용기 김윤영 박경애 박재현 박조룡 손찬영 송영호 이상인 이 성 이준민 정구현 조진우	교육전도사 강찬용 김근호 김동엽 김성민 김하성 레이첼 문태은 박경민 신호선 우혜순 이민기 이성준 자 췌 장근희 차주현 최성민 최하경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